

손명수 2차관, “고향 가는 길, 방역·안전에 만전” 강조

- 29일 수서고속철도(SRT) 수서역 찾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방역 중점 점검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(화), 수서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SR(수서고속철도)의 특별 수송대책을 점검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손명수 차관은 SR로부터 역사와 열차 방역활동 강화, 특별대책 본부 운영, 귀성·귀경 승객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 방역대책을 보고 받고,
 - “방역당국이 어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적용하게 될 ‘추석 특별방역대책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‘고향가는 길 철저한 방역과 안전 관리’를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- 또한, 손 차관은 “그동안 선제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온 철도 분야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던 만큼,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 - 아울러, 역사 대합실, 승강장의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, 역사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2020. 9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